

사설

‘불심으로 대화합’ 원년 열자

지금 이 땅의 한해는 분명 새롭게 시작되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는 젊은 새 지도자를 맞아 정치적으로 큰 변혁을 예고하고 있으며 그로 하여 보다 참신한 시대가 전개되리라 기대감을 높인다.

하지만 지난해 참여한 대결로만 치달아 온 선거로 인해 국민들은 너무나 피곤했고, 선택 결과로 드러난 이 땅의 상층은 전에 없이 깊은 것으로 드러났다. ‘찾는 것은 새 정치를 펴 보이겠다.’ 다짐하는 대통령 당선자의 첫 발언도 ‘분열과 갈등 아닌 화합과 대화로 만드는 나라’가 아닌가.

그렇다. 화합 없이는 정화된 사회, 품위 있는 풍요로운 삶도 통일염원도 이루기 어렵다. 화합에는 갈등상처의 치유가 우선되어야 한다. 치유 없이 어찌 화합을 기대 할 수 있을 것인가. 올 한해를 그래서 국민화합의 원년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불교 교단은 이 땅의 갈등구조 치유에 앞장서야 할 책무가 있음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사람들은 낮은 정치수준과 부조리한 경제구조가 오늘의 문제라 쉽게 생각해 버린다. 정치와 경제구조만 바뀌면 세상이 좋아질 것이라 믿는다.

과연 그럴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지난 한 세기 동안 서양 근대 사상이 가져 온 물질주의의 끝없는 추종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로인한 정신의 황폐화, 공허해진 우리들의 마음이 오늘의 온갖 갈등과 상처를 만들어 왔을 것이다. 다시 말해 진리의 부재, 철학의 빈곤이 그 원인으로 이 점을 보다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정신의 혁명’을 일깨운 석가모니 부처님의 종교, 그 ‘진리의 종교, 마음의 종교’를 전하고 있는 불교 교단, 그리고 불자들이 국민화합을 위한 갈등 치유에 앞장서야 할 이유가 여기에

에 있으며, 그동안 ‘부처님 마음’을 세상에 올바르게 전하는데 소홀했던 점 또한 자성해야 할 일이다.

진리는 어떤 권력이나 주의 주장보다 상위의 개념이며 이를 바탕으로 두지 않고서는 정치도 경제도 어느 것 하나 제대로의 역할을 해 낼 수 없다. 용수는 대지도론에서 불자가 의지해야 할 것은 진리뿐이라 했다. 그것이 어디 불자뿐이겠는가. 진리의 정법은 중생들의 삶을 요익하고 안락하게 이끄는 최상의 가르침인 것이다. 진리에 대한 믿음과 나라 사랑은 둘이 아니어서 사회통합도 민족통일도 진리의 반석 위에 구축되어야 한다. 진리의 토대 없는 나라사랑이나 민족통일은 헛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지난한해 우리가 피곤했던 것은 자기만이 옳다며 내편 네 편을 가르치는 패거리 의식의 고질적 편견과 특세에만 갇혀져 버려하고 이에 환호하는 천박함이었을 것이다. 상대방에 자신과 동등한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갈등해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불가에는 상불경(常不翻)보살이 있다. ‘내가 당신들을 공격하고 감히 가뻐이여지지 않노니...’ 우선 불자들이 만이라도 이 말을 새겨 ‘모두 상불경 보살이 되’는 노력을 시작하자.

그동안 ‘밝고 향기롭게’ 라든가 ‘인간4사 운동’ 등 사회를 향한 불가의 메시지가 없었던 것은 아니며 그 성과 또한 적지 않았다. 이제 한국사회에 화합을 위한 메시지를 만들어 피우도록 하자. 불자들의 올바른 행이 앞장 서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은 당연한 일이다. 불자들은 진리의 주춧돌을 하나하나 쌓아 가는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올해를 불심으로 국민 대화합의 길을 여는 원년으로 삼아보자.

해인사, 재가불자 위한 ‘제2 도량’ 세운다

2천여평 부지에 대규모 친환경 신행공간 마련키로

“시대 요구 부응하는 사찰 모델 제시”

해인사가 개산 1200년 만에 제2의 창건에 버금가는 새로운 신행문화공간을 인근 옛 해인초등학교 부지에 건립한다.

해인사는 지난해 12월 26일 박물관 인근 옛 해인초등학교 자리와 남쪽 상가건물 일부를 포함한

약 2,000여 평의 부지에 200억원의 예산을 들여, 다양한 신행공간이 자리 잡은 대규모 친환경도량을 건립하는 대작불사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새로 건립되는 신행문화도량은 법보공간, 신행공간, 도서관, 회의

공간, 다목적공간, 거주공간, 편의공간 등이 들어서며 불교의 창조성, 예술성이 등이 표현된 자연회복과 치유를 강조한 친환경적인 건축물로 조성될 예정이다.

해인사는 신행문화도량을 불자들의 법회 및 수련장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렇게 될 경우, 관광객들로 인해 수행에 지장을 받았던 그동안의 어려움도 자연스럽게 해

소될 전망이다. 또한 친환경적 불사를 통해 자연의 의미를 되살리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사찰 모델을 제시한다는 계획도 세워 놓고 있다.

해인사는 지금까지 많은 논란 속에 추진돼 왔던 해인사 대불 건립계획은 철회한다고 밝혔다. 크기와 규모에만 매달려 왔던 기존의 경쟁적 불사 관행을 지양하고

실리적이면서도 실용적인 진정한 의미의 불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 해인사 측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해인사는 12월 28일 박물관 세미나실에서 ‘개산 1200년 해인사 신행문화도량 건립 설계경쟁 공모’ 현장설명회 및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해인사 주지 세민스님 등은 이번 신행문화도량 건립 계획을 준비하면서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일본, 유럽 등지의 새로운 건축문화를 둘러보는 ‘신성한 장소로의 여행’이란 제목의 건축기행을 했다. 이를 통해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룬 다양한 선진 건축물들을 견학했으며, 공모전 심사에 이번 경험을 참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원구 기자 bak09@buddhania.com



불교지도자 5명 국민훈장

지하·성타 스님 무궁화장

혜초·무비 스님 동백장

효암 통리원장 목련장

효암 대정사(진각종 통리원장), 혜초(前 태고종 총무원장), 무비(조계종 교육원장), 지하(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성타(불국사 회주)스님 등 불교계 지도자 5명이 국민훈장을 수상했다.

불교생협학교 개설

인드라마생명공동체

인드라마생명공동체가 18일 예정한 불교생협운동본부 창립식을 앞두고 예비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불교생협학교’를 개설한다.

불교생협운동본부 발기인 및 사무처, 인드라마의 각 자치기구 활동가, 300여명의 예비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불교생협학교는 9월 생협운동과 공동체, 11월 생협조직운영과 활동가의 역할, 생협운영실제와 사례, 불교생협운동의 운영원칙과 과제 토론회, 13일 한살림매장 현장학습 등으로 이뤄진다. (02)733-1884 남동우 기자

지한 점이 평가됐다. 효암 진각종 통리원장은 목련장을 수상했다. 남동우 기자

원웅종, 전국주지총회

새해 주요사업등 논의

원웅종(총무원장 법륜)은 지난해 12월 17일 서울 구로구 총무원에서 전국주지총회를 열고, 영산수륙대제 개최 등 내년도 종단 주요 사업의 세부계획을 논의했다. 원웅종은 이밖에 창종 22주년 기념 법회 봉행 및 전국 주지스님 수련회 등의 개최일정도 협의했다. 원웅종은 이날 전국주지총회에서 다룬 안건을 6일 열리는 중앙총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02)853-0531 김철우 기자

호스피스자원봉사단 발족

천태종 ‘니르바나’ 창립...활동착수

불교계에서는 처음으로 전국 규모의 불교 호스피스 자원봉사단이 발족했다.

천태종복지재단대표이사 윤덕, 총무원장은 지난해 12월 13일 총부(총무원)에서 불교호스피스 자원봉사단 ‘니르바나 자원봉사회’ 창립법회를 갖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천태종복지재단은 이미 지난해 서울 관문사, 부산 삼광사 등 전국 천태종 사찰 8곳을 순회, 호스피스 자원봉사 교육을 실시했으며, 앞으로 전국 단위의 호스피스 자원봉사 교육망을 가동해 전국 사찰에 자원봉사회를 결성시켜나갈 계획이다.

김철우 기자

불자 노후보장 연화연금보험 출시

교보생명, 성지순례자금 지급 특징

교보생명이 세속적 연고자가 없는 스님 또는 재가 불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무배당 연화연금보험’을 개발했다.

수행자로서 위의를 지키며 노후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개발된 연화연금보험은 종신연금형과 확정연금형으로 나뉘어 있다. 제1보령기간 중 월납의 경우 주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제1급 장애를 당하게 되면 300백만 원+책임준비금이 지급되고, 일시납의 경우 일시납보험료의 6%+책임준비금이 지급된다. 제2보령기간에서는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점의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점의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확정

된 연금지급 기간동안 연금을 지급한다.

상품을 개발한 교보생명 강석훈씨는 “보험은 시중실세금리를 탄력적으로 반영하고 있고, 연금개시 시점에 성지순례자금 300백만 원을 지급하며, 자유로운 입출금으로 자금운용이 가능하도록 중도인출제도와 추가납입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금강학술장학회 설립

천태종(총무원장 윤덕)은 지난해 12월 13일 충북 단양 총부산 구인사 대법당에서 ‘금강학술진흥장학회’ 설립법회를 병행했다. 금강학술진흥장학회는 종단 산하 금강대학교를 지원한다. 김철우 기자

Advertisement for '현대' 만평 (Modern Cartoons) by Kim Young-min. The illustration shows a person climbing a tall structure labeled '신행문화도량' (New Buddhist Culture Hall) while others look on. Text includes '누구나 즐겁게 수행할 그날이 빨리...' and contact info for Kim Young-min.

Advertisement for '현대 불교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Modernization of Buddhism). Includes contact info for the editorial team, website (www.buddhanews.com), and subscription rates.